

광주 첨단3지구 유력...전남 솔라시도·무안·목포 거론

RE100산단 어디에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국정과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RE100' 산단 구축에 눈길이 쏠린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제도적 기반을 다지면서 계획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는 영농형 RE100산단 = 광주형 RE100은 영농형 태양광 중심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총 15개 산업단지 중 조성완료 12개, 조성중 1개, 계획중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3389만 8000㎡에 달한다.

이 중 도심지 소재 노후 산단과 부지 제약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10곳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RE100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지리적으로 바람 자원이 풍부한 해안과 떨어진 내륙 도시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가 선택한 돌파구는 태양광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시 기후에너지국 산하에 'RE100 추진사업단'을 구성해, 산업단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 설계하기 시작했다

광주시 산업단지 중 RE100 도입 우선 검토 대상으로는 현재 조성 단계에 있는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친환경 분산전원 인프라와 RE100 산단 건립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첨단3지구 내 RE100산단 조성은 광주형 AI밸리 조성과 연계되면 광주 산단 중 가장 확실한 RE100 정책이 적용 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계획중인 미래자동차 산단(338만4000㎡)과 의료특화산단(46만2000㎡)도 설계 단계부터 RE100 체계를 반영해 조성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자동차 산단은 2030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기본구상 단계에 있어, RE100 특별법 제정과 연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RE100체계에서 생산된 전력의 1호 공급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 광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GGM에서 캐스퍼를 생산해 유럽과 일본 등지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첨단산업단지(1·2단계 총 999만1000㎡), 빛그린산단(184만5000㎡), 평동산단(1·2·3

광주, 영농형 태양광 중심

AI밸리 조성의 연계

전남, 복수의 단지에 조성 계획

재생에너지 미래도시 적합

차 총 612만6000㎡), 하남산단(592만2000㎡) 등 대규모 산단들이 쏠린다.

이들 산단은 넓은 부지와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고, 인근 농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구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박준식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광주는 내륙형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광장히 좋은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라며 "성공한 시범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확장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전남은 '솔라시도' 유력속 타 후보지도 검토 = 전남은 정부 주도로 계획 중인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해 산단 부지로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

특히 정부가 RE100 산업단지로 한 곳이 아닌 복수의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남의 RE100 산단 유치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우선 가장 유력한 산단 부지로는 해남 산이면 일원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언급된다.

BS그룹(옛 보성)이 개발중인 솔라시도는 2090만㎡ 부지에 재생에너지 설비와 AI 데이터센터, ESS(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필두로 하는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도시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넓은 땅과 높은 일사량, 빠른 풍속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또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용에 있어 산업용수도 충분하다. 이미 98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가동 중인 솔라시도는 도시 반경 15km 내에 4GW 규모의 육상·수상태양광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 가장 유력한 산단 후보지다.

최근 SK그룹과 오픈AI가 전남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이다. SK그룹과 오픈AI는 GPU 1만여개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의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비공개 일정으로 헬기콧터를 타고 해남과 영암 일대를 둘러봤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솔라시도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서남권 RE100 그린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목포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또 광주 민·군 공방 통합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무안군에 RE100 산단도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는 현실적으로 RE100산단 유치 가능성이 솔라시도를 포함, 타 후보지의 지리적 여건을 검토하며 정부의 RE100 산단 계획에 적극적인 의견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보이스포싱 통합대응단 출범...캄보디아 24시간 들여다본다

정부가 15일 보이스포싱에 범정부로 대응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서울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경찰청·금융위·과기정통부·KISA·금감원·금보원 등 유관기관 인력이 합동 근무한다.

조직은 신고대응센터·분석수사팀·정책협력팀으

로 구성되며,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운영해 계좌 지급정지·소액결제 차단·악성 삭제 등 긴급조치를 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 번호 이용중지, 전담수사대와 공조로 검거·수단 차단을 병행하고, 정책협력팀은 법·제도 개선과 대외 협력을 추진한다. 캄보디아 등 동

남아 범죄조직 연계 신종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출범식에서는 삼성전자, 통신 3사, 알뜰통신사 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등과 협업 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윤호중 장관·윤창열 실장은 피해 감축·안정적 운영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정책실장·산업장관 내일 방미 관세협상 논의 3500억불 대미투자 운영방안 이견 조율할 듯

한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수정 대안에 미국이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가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실무·장관급 협상을 속도전으로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집행 구조와 국회동의·특별법 등 국내 절차 가능성을 패키지에 반영해 '정상 간 정치적 합의 + 실행 담보'의 이중안 전략치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며 "APEC 기간을 실질적 목표로 장관급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 MOU 세부 이행을 둘러싼 간극으로 두 달 넘게 공전했으나, 이번 주 우리 협상단이 추가 논의를 위해 출국했고 선발대가 이미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패키지의 구조다.

김 실장은 "일시에 거액이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과 상업적 검토가 기본"이라며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한국 기업의 실질 참여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투·융자·보조의 현실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선불' 성격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외환시장 변수와 국민이 납득할 조건, 국회 동의와

특별법 등 기술적 요건을 설명했고 그 요건을 담아 전달했다"고 했다. 초기 일본과의 합의 모델을 참조했던 정부는 8월 초 미국 측 MOU 초안을 계기로 항목 구분의 불분명성을 문제 삼으며 재조정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격한 말도 오갔지만 지금은 상호 이해가 진전됐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의 심경도 전했다. "역사를 많이 반추했다. 어려운 시기 사신들이 문전박대와 모욕을 감내했던 심정이 떠올랐다"며 "동맹에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의 해법을 찾겠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제대로 도와줄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처럼 관세 협상 패키지의 현실적 재구성 과 자본시장·반도체·에너지까지 연결되는 '정책 번들'을 통해 APEC 경주 무대에서 정치적 타결과 실행 담보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한편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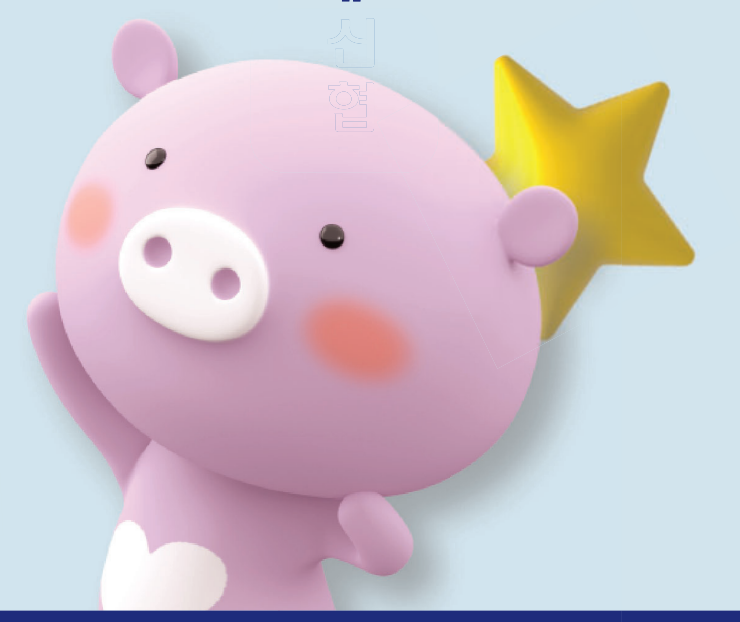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